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문학창작에서 문학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문제

김 성 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시대정신을 지닌 보다 아름답고 참된 인간들로 교양하는데서 현실주제영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영화를 만드는데서 기본은 현실물영화를 많이 만드는데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2권 420페이지)

오늘 우리 영화의 종류와 형식을 다양하게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창작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문학창작에서 문학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덕성과 현실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인간학적인 문제의 발견에도 힘을 넣는것이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한 영화문학을 창작할 때 인간학적인 문제를 바로세우고 깊이있게 밝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거리를 잡았다고 하여도 실재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서는 회상 실기를 읽거나 기록영화를 보는것보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정 하나하나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뜨거운것이지만 그 과정에 깃들어있는 심오한 인간문제를 탐구하고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어야 참다운 문학성을 가진 영화문학으로 될수 있다.

실례로 영화문학 《소원》의 창작경험을 들수 있다.

영화문학 《소원》은 독연 《소원》에 기초하여 창작되였다.

독연 《소원》은 마가울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봄에 왔을 때 휴가를 갔던 동무들이 나와 기념촬영을 하지 못해 집에 앉아도 못보고 안해들한테 풀기워왔다고 하는데 그 안해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했으면 그랬겠는가고, 이번에 들어갈 때에는 가슴을 짝 찢고 떼떼하게 들어가게 하자고 하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에 기초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의 기본내용은 가족사진 하나 없어 마음씩이던 군관의 안해가 2상의 기념사진을 받아안고 그것이 가장 큰 가보라는것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이다.

군인가족들의 소원을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으로 되어있는 원작을 영화문학으로 옮기자면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성격을 발견하여야 했으며 성격발전과정으로 일관된 문학적인 이야기가 발견되어야 하였다.

영화문학 《소원》에서는 선군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소원은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명과정으로 문학적이야기를 조직하고있다.

한가정의 가족사진, 기념사진만을 바라던 독연의 주인공 봄순이가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인간으로 재창조되었다. 그리고 한가정의 안해와 남편의 소원에 대한 독연의 이야기가 영화에서는 유경이네 가정과 봄순이네 가정, 그들을 보며 시대의 의무를 자각해가는 명성이네 가정과의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보다 극적인 이야기로 심화되게 되었다.

영화문학 《소원》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덕성이야기를 반영하면서 참된 삶의 진리와 관련된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문학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주의현실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기초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에도 인간문제를 발견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생겨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있을수도 흉내낼수도 없고 오직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이러한 소재들은 그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서적충격을 줄수 있다. 그러나 소재자체에만 매달려 그대로 전달하는 식으로 형상하여서는 영화문학의 문학성을 옹기 살려낼수 없다.

실례로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아름다운 소행을 소재로 한 영화문학 《고마운 처녀》와 《저 하늘의 연》을 들수 있다.

같은 이야기줄거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두 작품은 인간문제가 갈아질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작품들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원형인물들의 서로 다른 성격적진모를 깊이 파고들어 특색있는 인간문제를 발견하고 감동깊은 이야기로 펼치고있다.

영화문학 《고마운 처녀》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의 참된 행복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평양으로 소환되여간 부모들을 따라 수도로도 갈수 있었고 사랑하는 제대군인청년과 단란한 가정도 꾸릴수 있었던 처녀주인공 영심이 부모없는 오누이의 친어머니가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안락보다 남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상을 해명하고있다.

영화문학 《저 하늘의 연》에서는 자기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인생을 사는가 하는 인생관적문제를 제기하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의 주로를 달리던 서연이가 집단을 위한 인생주로에서 참된 보람을 찾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삶에 참다운 인생의 보람이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유명한 마라손선수가 되려는 꿈을 안고있던 주인공 서연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학급동무들은 청춘시절을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보내려는 열망을 안고 방목지에 집단진출한다. 그러나 동무들은 일본땅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서연의 꿈을 소중히 여겨 체육단으로 등을 떠밀어주면서 그의 이름을 자기들의 청년작업반명단에 그대로 남겨둔다.

동무들의 믿음과 기대를 안고 마라손선수로 이름을 떨칠 열망으로 훈련주로를 달리던 나날 그는 무궤도전차운전수와 그의 안해인 차장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전차를 따라 달리는 주인공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던 어느날 서연은 무궤도전차운전수의 안해가 어느 한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 아

이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차장의 아름다운 소행에서 큰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자기의 인생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되며 마침내 어머니를 잃은 그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될것을 결심한다.

이렇게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인생주로의 첫걸음을 뗀 주인공은 그후 부모잃은 여러명의 아이들을 더 데려오며 그들을 위해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녀성으로서의 권리마저 마다한다.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내세우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인간들로 성장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준다.

저하나만의 꿈과 명예를 위한 인생주로를 달리던 주인공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인생의 새 주로에서 참된 보람을 찾는 이야기는 영화문학 《고마운 처녀》와는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이처럼 미담을 소재로 한 영화문학을 창작할 때에는 미담 그자체를 전달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원형인물의 성격적진모를 깊이 파고들어 그의 인생에서만 흘러나올수 있는 고유한 인간문제를 발견하고 문학적이야기로 펼쳐 감동깊게 해명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문학창작에서 문학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우리 시대의 본보기로 되는 전형적인물의 이야기를 반영하면서 그의 정치사상적지향과 함께 인간적품모를 잘 그리는것이다.

시대의 전형인 주인공이 지닌 정치사상적지향만 강조하면서 그의 인간적면모를 진실하게 형상하지 못한다면 인물의 성격과 생활이 현실에서 보고 듣는것보다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된다.

우리 시대 전형들이 지닌 아름다운 인간적면모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는 인간에 대한 관점,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량심을 바쳐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헌신성, 풍부한 정서와 열정, 고상한 윤리도덕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문학에서 시대의 전형으로서의 주인공이 지닌 정치사상적지향은 아름다운 인간적면모에 대한 형상과 결합될 때에만이 관중들에게 정서적으로 납득될수 있다.

실례로 영화문학 《우리 집 이야기》를 들수 있다.

작품은 고급중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처녀가 부모잃은 아이들을 키우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정화는 웃음도 많고 더없이 순결하며 마음씨 고운 19살의 나어린 처녀이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깊고 다심한 처녀이다.

신병으로 앓고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약을 구해오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약시간을 꼭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는 사랑스러운 처녀, 부모잃은 세 아이에 대하여 알게 된 그날부터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놓지 못하는 처녀이다.

작품에서는 그렇듯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 정화가 한걸음한걸음 은정이네 형제들에게로 가까이 가는 과정에 겪게 되는 가지가지의 세부적형상을 통하여 그의 인간적면모를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애어린 처녀가 세 아이의 어머니, 나아가서 여러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어머니가 없다는 못사람들의 동정을 받을가봐 언제나 동생들을 닮아세우는 은정이의 강한 자존심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욕도 달게 받아들이는 정화, 그는 요리경영에서도 얼마든지 1등을 할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줄 학용품을 상품으로 타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리를 망치기도 하고 상품으로 탄 화장품을 학용품과 서슴없이 바꾸기도 하며 초소에 선 은정이의 오빠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알세라 은정이가 어머니의 《필적》으로 고향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홀로 눈물도 짓던 정화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싶은 자기의 진정을 터놓는 형상에서 보다 더 승화되어 안겨오면서 《처녀어머니》로서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강한 정서적여운속에 안겨온다.

이처럼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운 인간적품모를 형상하면서 그것이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따르려는 충정심에 기초하고있으며 생활의 전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공고화되었다는것을 생활화폭을 통하여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문학창작에서 문학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부정인물의 개조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서 긍정일면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의 사람들속에는 긍정적인것만 있는것이 아니라 부정적인것도 아직 남아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요구대로 개조하려면 긍정적모범을 통한 감화교양과 함께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을 하여야 한다.

작품에 우리 사회의 부정인물을 설정하는 중요한 목적은 그가 동지들과 집단의 원칙적인 비판과 뜨거운 사랑속에서 어떻게 개조되어가는가 하는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훈을 주자는데 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문학에서 부정인물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잘 형상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인물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부정인물을 개성적으로 형상하여야 하며 그의 교양개조과정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인물은 정치적견해나 인생관의 본질적대립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정치적준비정도나 인생관의 깊이에서의 차이에서 구별되는 인물이다. 사람들의 성격은 천태만상이고 그들의 생활도 개성적이다. 그러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부정인물의 성격도 개성적으로 그려야 할뿐아니라 그 개조과정도 도식화해서는 안된다.

부정적측면의 개변과정이 현실에서와 같이 여러모로 진실하게 그려져야 사람들은 자신들을 솔직히 비추어보면서 교훈을 찾게 된다.

부정인물은 애초부터 부정의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사람가운데도 따져보면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가운데도 긍정적인 면이 한두가지가 아닌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인물은 본질적으로 그릇된 인물이 아니며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투쟁을 통하여 개조발전되는 인물이다.

영화문학 《이어가는 참된 삶》에서 주인공 광옥의 성격적부정면이 개변되어가는 과정은 인간학의 요구에 맞는 형상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작품의 첫시작에 그려진 주인공 광옥은 영웅인 부모들의 공로와 명예 밑에서 누구보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새 세대이지만 그들의 녀를 이어가려는 시대적자각보다 개인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부정인물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뒤를 이어 농촌진지를 이어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을 외면하고 수도의 과학원에 떨어져 한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어머니를 모셔다 오빠와 함께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릴 꿈을 꾀다. 하기에 그는 어릴적친구로서 자기에게 남다른 정을 품고있는 천석의 순박한 마음을 랭대하고 수도에서 탄원해와 서진주영웅의 딸로 살려는 순정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 발전을 위한 행동으로 반감을 품는다. 광옥의 이러한 부정적인 성격은 상대인물인 순정의 긍정적인 성격과 대조를 이루면서 혁명의 전 세대들의 녀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인 문제, 인간학적인 문제를 안고있다.

광옥의 그릇된 사상관점은 오빠 광일이와의 충돌에서 처음으로 표현되게 된다. 광일은 방학기간 집에 와서도 손에 흙을 묻힐 생각은 없이 매미처럼 놀기만 하는 동생의 행동이 눈에 거슬려 추궁을 한다. 그러나 광옥은 농사군의 자식이어서 꼭 농사군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대든다. 더우기 광옥은 떠나가는 자기 앞길을 막아나서는 순정에게서 어떻게 조용하던 자기 집에 뛰어들었는가고 하면서 순정의 진정을 모욕한다. 그후 광일이가 적들과의 해상격전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어머니는 남들이 다 참가하는 농촌지원마져 빠진 딸의 행동앞에서 분격하여 광옥의 뺨을 친다. 그달음에 오빠에게 달려갔던 광옥은 광일에게 피를 수혈해주는 순정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며 뒤이어 군당책임비서(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본다.

드디어 광옥은 수도에 떨어지려던 애초의 《리상》을 단호히 부정하고 당에서 그토록 바라는 희토류비료연구를 위해 검산리로 달려간다. 한두시간이면 어머니가 있는 고향마을에 가닿을수 있었지만 광옥은 영웅들의 자식이라고 뽐뽐이 말할수 있게 되는 그날을 위해 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다. 드디어 연구사업에서 성공하고 박사가 되어 돌아온 광옥이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 걸던 고향길로 어머니를 업고 걷는 생활세부는 혁명의 계승문제에 대한 새롭고 심오한 예술적형상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피를 받아 자식이 아니라 녀를 이어야 자식이라는 작품의 종자는 광옥의 부정적인 성격이 오늘의 선군시대 현실속에서 개조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해명되고있다.

모든 창작가들은 문학성이 높은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문학창작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